

# 황무지에 새움 틔우는 봄의 움직임

일간지와 광고전단을 활용한 출판광고 지상전 ④

## 왜 문학동네 사람들이 모였을까

지금은,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와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스님의 맨발**  
최정호 시집  
『스님의 맨발』의 출간을 축하하며 신간이벤트와 함께 있는 스님들이 책과 인연을 품어주는 행사다.

**해산 가는 길**  
최정호 시집  
『해산 가는 길』의 출간을 축하하며 신간이벤트와 함께 있는 스님들이 책과 인연을 품어주는 행사다.

**포구**  
최정호 시집  
『포구』의 출간을 축하하며 신간이벤트와 함께 있는 스님들이 책과 인연을 품어주는 행사다.

**까마**  
최정호 시집  
『까마』의 출간을 축하하며 신간이벤트와 함께 있는 스님들이 책과 인연을 품어주는 행사다.

**문학동네 작가 시인회**  
오늘(4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4시까지 교보문고 매장에서

**에인의 도시**  
최정호 시집  
『에인의 도시』의 출간을 축하하며 신간이벤트와 함께 있는 스님들이 책과 인연을 품어주는 행사다.

**불완전 안경원**  
최정호 시집  
『불완전 안경원』의 출간을 축하하며 신간이벤트와 함께 있는 스님들이 책과 인연을 품어주는 행사다.

**나를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최정호 시집  
『나를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출간을 축하하며 신간이벤트와 함께 있는 스님들이 책과 인연을 품어주는 행사다.

**관객**  
최정호 시집  
『관객』의 출간을 축하하며 신간이벤트와 함께 있는 스님들이 책과 인연을 품어주는 행사다.

**새의 선물**  
최정호 시집  
『새의 선물』의 출간을 축하하며 신간이벤트와 함께 있는 스님들이 책과 인연을 품어주는 행사다.

**연이**  
최정호 시집  
『연이』의 출간을 축하하며 신간이벤트와 함께 있는 스님들이 책과 인연을 품어주는 행사다.

**연이**  
최정호 시집  
『연이』의 출간을 축하하며 신간이벤트와 함께 있는 스님들이 책과 인연을 품어주는 행사다.

**연이**  
최정호 시집  
『연이』의 출간을 축하하며 신간이벤트와 함께 있는 스님들이 책과 인연을 품어주는 행사다.

**연이**  
최정호 시집  
『연이』의 출간을 축하하며 신간이벤트와 함께 있는 스님들이 책과 인연을 품어주는 행사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던가. 우리에게 엘리엇의 시구가 이렇게 절실했던 적도 없었을 것이다. 출판계도 예외가 아니다. 불황의 여파로 지난 연말부터 인쇄업계와 도매상의 부도와 대규모 출판사들의 구조조정이 이어지자 이제 이 도미노 현상은 많은 출판사들에도 밀어닥쳐 부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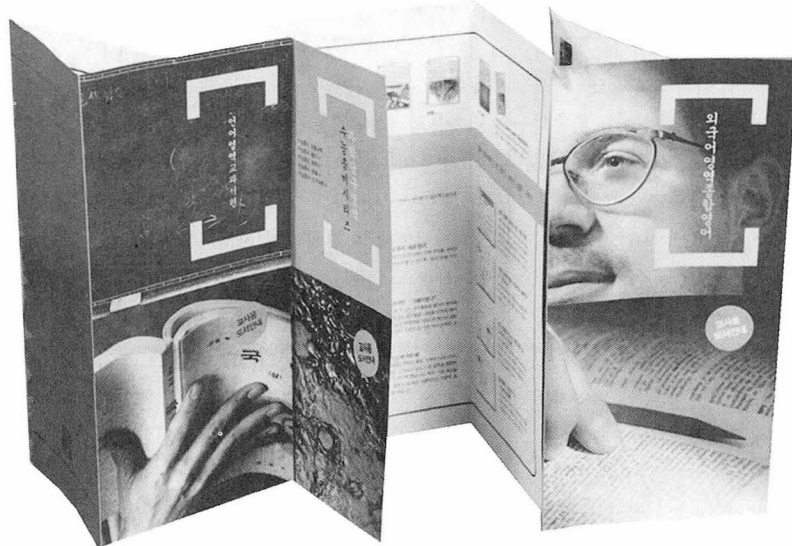
그러나 황무지 속에서도 새움을 틔우는 봄이 온다. 요즘 출판계 역시 안팎의 이쁨을 딛고 거듭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출판사들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출판사의 특성을 살린 광고와 이벤트, PR 등 다방면에서 보여지고 있다.

‘문학동네’의 경우는 지난 4월4일 교보문고 매장에서 ‘문학동네 작가 시인회’를 가졌다. 출판사의 자산이 작가를 비롯한 저자들이라면 이 출판사는 그 자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다시 힘을 북돋우는 행사를 가진 셈이다.

이벤트는 뉴스를 만든다. 훌륭한 이벤트는 언론을 통한 퍼블리시티(publicity)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PR 개념이 강한 이 행사는 단순한 판촉행사가 아니라 독자와 출판사, 서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광고와 더불어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달 광고의 특색 중 하나는 단행본 이외에 계간지 정기구독을 유도하는 광고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 출판사가 출혈하다시피 제작해 온 계간지들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폐간되는 현실이 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자구책을 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정기구독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관심유도를 위한 엽서 제작, 광고 등 다양한 노력들이 눈에 띈다. <마정미>

· 문학동네의 작가 시인회광고 ‘왜 문학동네 사람들이 모였을까’라는 카피와 함께 쟁쟁한 작가들의 사진과 작품목록을 실었다. 출판사의 책광고 중에서 새로운 형식이 아닐 수 없다. 행사와 광고, 퍼블리시티가 함께 상승효과를 가진다. (조선일보 4월4일자)



· 디딤들의 교사용 도서안내 리플릿. 언어영역교과서편, 외국어영역 종합영어, 과학탐구영역으로 분류한 수능콤비리리즈 교재를 실었다. 수능시대에 맞는 교사용 광고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3단으로 접지한 앞면은 2단으로 나누어 모노톤의 사진을 실었고 색채와 편집에 통일성을 기했다.

